

‘호란’연구에서 주의할 점

스즈키 카이 (鈴木開, 동경대학)

번역: 홍성민 (洪性珉, 와세다대학)

들어가며

‘호란’이란 청 태종 홍타이지가 두 차례에 걸친 한반도침략에 대한 조선 측의 호칭으로 1627 년의 정묘호란, 1636 ~ 7 년의 병자호란을 가리킨다. 이 ‘호란’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왜란’ 연구 등과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뒤쳐져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관련 자료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점, 또 그 자료가 한문, 만주어, 몽골어 등 복수의 언어로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한국사’ 혹은 ‘한국’ 자료만을 이용한 접근으로는 심화된 역사적이해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호란’ 연구는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호란’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였지만, 한명기가 『정묘 ·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2009), 『역사평설 병자호란』 (2013) 을 비롯한 저작을 발표하여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한명기 연구의 의의는 크게 평가해야 하지만, 반면에 한명기의 연구에는 기존 연구를 답습한 부분이 많고, 새로운 견해는 많지 않다. 또한 전술한 각국에 편재한 자료의 활용이나 만주어, 몽골어 자료의 해독 등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명기가 주로 의거한 유재성의 연구¹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또 만주어사료를 비롯한 명측, 청측 사료의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² 향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로, 종전의 이해 즉 조선과 청의 관계를 책봉관계만으로 파악하고 이 틀 안에서 ‘호란’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해도 여전히 존재한다.³

여기서는 처음에 열거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관련자료의 편재성이라는 문제밖에 다룰 수 없지만, 현재 ‘호란’연구에서 남겨진 과제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용문 속의 소괄호 () 안은 인용자가 주기(注記)한 부분이고 대괄호 [] 안은 인용자가 삽입한 부분이다.

1. ‘정묘호란’은 있었는가?

한명기는 『정묘 ·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제 2 장을 ‘정묘화약의 균열과 병자호란의

¹ 柳在城, 『丙子胡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6.

² 丘凡眞・李在璫, 「丙子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과 規模」, 『韓國文化』 72, 2015; 張禎洙,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 2016; 李在璫,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軍史』 103, 2017 등.

³ 예를 들면 홍성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최근 연구동향을 잘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1637 년 이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조공 의례와 조공국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적었으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洪性鳩, 「청질서의 성립과 조청관계의 안정화 : 1644 ~ 1700」, 『東洋史學研究』 140, 2017, 168 쪽을 참고.

발생과정'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정묘화약’이 체결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 관계는 파열음을 내었다”고 서술하였다.⁴ 그리고 2017 년의 논문에서는 ‘정묘화약의 파탄 과정’에서 1633 년 후금(後金)에 귀순한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 등을 조선군이 공격한 사실을 가지고 “후금이 조선의 ‘본심’을 확인하여 정묘화약이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었다”고⁵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한명기의 어느 저작을 보더라도 이 ‘정묘화약’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 ‘정묘화약’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유재성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유재성은 “정묘호란은 이 해(1627 년) 3 월 3 일에 성립한 정묘화약을 통해 일단 전쟁상태를 종식시켰다”고⁶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한명기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예컨대 김성균이 3 월 3 일에 인조가 피난처인 강화도에서 ‘강화서약’을 맺었지만 내용에 불만을 품은 총사령관 아민 Amin 이 귀로 중에 평양에서 ‘평양서약’을 맺었으니, 양 쪽 다 정식적인 서약이었다고 이해하였다.⁷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巖吉)는 ‘강도서문(江都誓文)’과 평양에서 맺었던 ‘맹세’에 대해서 서술하고 평양에서 맺었던 “서약문의 요령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강도서문과 비교하여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양자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⁸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떠하였을까?

강화에서 맺은 맹약을 홍타이지에게 보고하기 위해 쿠르칸 Kūrcan 이 심양으로 향한 뒤, 아민은 “조선왕(朝鮮王)은 맹세를 하였겠지만 우리들은 아직 맹세하지 않았다. 병사를 되돌리면서 포로[俘虜]를 붙잡고 약탈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사흘 간 약탈을 하면서 평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었던 조선의 항복사절 이구(李玖), 이홍망(李弘望)과 평양에서 다시금 天地에 강화를 맹세하였다. 여기에서 읽고 태운 문서에는 ①인조가 홍타이지에게 보내야 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 ②후금의 사절을 명의 사절과 동등하게 존경하지 않을 때, ③후금에게 악의를 품고 성곽을 견고히 하고 군대를 정비하였을 때, ④여진이 붙잡아서 머리를 깎은 자가 조선으로 도망갔어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 ⑤인조가 “멀리 떨어진 명과 친하게 지내기 보다 가까이 있는 후금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어겼을 때에는 조선을 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조선이 후금에게 보내는 예물 (①), 후금 사절 맞이하기 (②), 군비의 금지 (③), 도망 포로의 송환 (④), 명과 단교 (⑤) 를 맹세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전부 강화도에서 맺었던 맹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아민의 독단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된다.⁹

그리고 이는 조선 정부도 충분히 파악하여, 아마도 아민 본인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항의를 위해 작성한 문서도 남아 있다.

서한을 받은 바, 무사히 대동강을 건넌음을 알았는데, 게다가 맹세문[誓文]을 제시해 주었으니 매우 다행이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강화도에서] 선서하였을 때, 맹세문을 기초하였고, 귀국과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뒤에 하늘에 고하여 서약하였다. 이 맹세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두 나라는 이미 화평을 맺었다. 금후 양국은 서로 맹세를 지키고,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⁴ 韓明基, 『丁卯・丙子胡亂과 東아시아』, 푸른역사, 2009, 90 쪽. 이 밖에 153 쪽도 참고.

⁵ 韓明基, 「明清交替 시기 朝中關係의 추이」, 『東洋史學研究』 140, 2017, 68 쪽. 또한 66~67, 71 쪽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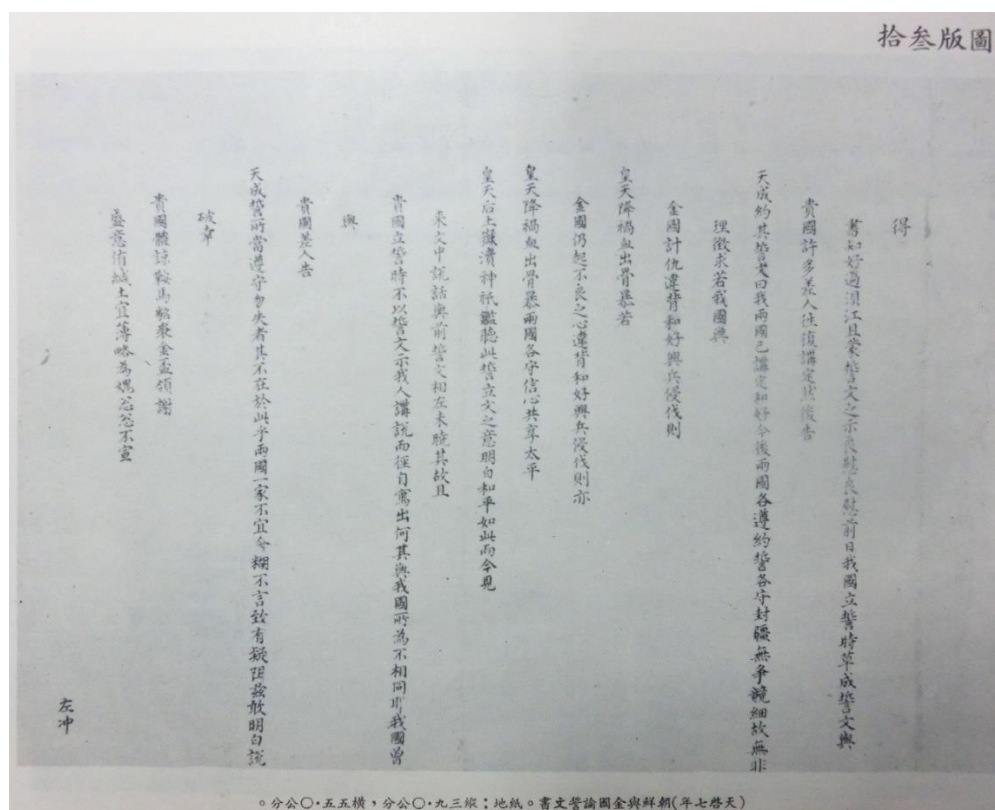
⁶ 柳在城, 『丙子胡亂史』, 113 쪽.

⁷ 金聲均, 「初期의 朝淸經濟關係交涉略考」, 『史學研究』 5, 1959, 12 쪽; 同, 「朝鮮中期의 對滿關係」, 『白山學報』 24, 1978, 21~22 쪽 등.

⁸ 稻葉巖吉, 『清朝全史』 上, 早稻田大學出版部, 1915, 226~228 쪽. 鴛淵一, 「淸初に於ける 淸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一)」, 『史林』 13-3, 1928, 46 쪽도 ‘강도(江都)의 맹세문[誓文]’에 덧붙여서 “또한 이 밖에 청의 사절[使者]과 조선의 재신(宰臣) 사이에는 사적인 맹세가 교환되었는데, 상세한 조목의 협정이 정해진 듯하다”라고 하였다.

⁹ 이상은 拙稿, 「朝鮮丁卯胡亂考」, 『史學雜誌』 123-8, 2014, 21~22 쪽.

우리 나라가 금국에 대하여 복수의 기회를 엿보아 강화를 어기고 거병하여 침략한다면 황천[皇天]이 재앙을 내려서 피를 흘리고 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만약 금국이 여전히 불순한 마음을 품고 강화를 어기고 거병하여 침략한다면 또한 황천이 재앙을 내려서 피를 흘리고 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양국은 각각 신의의 마음을 지켜서 함께 태평을 누리지 않겠는가? 天地도 산천의 신도 이 맹세를 보시옵소서.” 이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게 화평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내온 서한 속에는 먼저 [강화도에서 맺은] 맹세문과 비교하여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귀국(貴國)이 선서하였을 때, 맹세문을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측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자 곧장 이를 적었다. 어찌하여 우리 나라가 행한 것을 똑같이 행하지 않는가? 우리 나라는 일찍이 귀국과 함께 사람을 파견하여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 바야흐로 [맹약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도록 주의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양국이 한 집안이 되고부터는 말을 애매하게 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하여 의혹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감히 명백하게 설파하여 귀국의 이해를 얻었으면 한다. 鞍馬, 貂의 毛皮, 金杯 [를 하사하시니], 친절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나 답례로 보내는 토산품이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¹⁰



「도판 30 朝鮮與金國論誓文書」

(李光濤 編『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59年, 70 쪽)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강화도에서 맹약을 맺었을 때 맹세한 내용임은 명백하니, 평양에서 맺은 맹세는 이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 문서가 청조에서 보관되어 자료집에 채록된

¹⁰ “得書, 知好過涇江, 且蒙誓文之示, 良慰良慰. 前日我國立誓時, 草成誓文, 與貴國許多差人往復講定, 然後告天成約. 其誓文曰, 我兩國已講定和好. 今後兩國各遵約誓, 各守封疆, 無爭競細故, 無非理徵求. 若我國與金國計仇,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皇天降禍, 血出骨暴. 若金國仍起不良之心,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禍, 血出骨暴. 兩國各守信心, 共享太平. 皇天后土, 嶽瀆神祇, 鑑聽此誓, 立文之意, 明白和平如此. 而今見來文中說話, 與前誓文相左, 未曉其故. 且貴國立誓時, 不以誓文, 示我人講說, 而徑自寫出. 何其與我國所爲, 不相同耶. 我國曾與貴國, 差人告天成誓. 所當遵守勿失者, 其不在於此乎. 兩國一家, 不宜含糊不言, 致有疑阻. 茲敢明白說破, 幸貴國體諒. 鞍馬貂裘金盃, 領謝盛意, 侑絨土宜, 薄略爲媿. 忿忿不宣. 左冲.”

사실은 후금 측이 이 문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로는 이에 대해서 아민과 홍타이지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료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후의 교섭에서 홍타이지가 강화도에서 맺은 맹약에 반발하여 평양 맹약을 제안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후금 측에서는 평양에서 맺은 맹약을 조선 조정에게 이행시키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후금 측에서 이 평양 맹약을 근거로, 예를 들어 조선에서 후금으로 보내는 예물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명과 조선의 접촉을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민이 정묘호란에서 독단전행(獨斷專行)한 일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1630 년 6 월에 실각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어찌하였든 강화도 맹약과 평양 맹약 간의 내용차이, 그리고 전자를 정식적인 맹약이라고 보는 인식은 조선에서도 후금에서도 공유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묘호란 이후의 조선과 후금의 관계도 단지 후금이 조선에게 정치적 압박을 강요해 가는 과정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강화도 맹약을 기점으로 어떻게 교섭이 진행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강조해 두고자 하는 점은 정묘호란 시기에 맹세한 맹약을 ‘정묘화약’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3 월 3 일에 맺은 것을 강화도 맹약, 3 월 18 일에 맺은 것을 평양 맹약이라고 불러서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후 조선과 후금 간의 교섭은 강화도 맹약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평양 맹약에 어떠한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후금 내부의 의견 불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평양 맹약에도 일정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가지 맹약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양자를 혼동할 여지가 있는 ‘정묘화약’이라는 용어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그 ‘균열’이나 ‘파탄’을 말하는 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2. 박난영의 죽음에 대하여

정묘호란 이후, 최초의 회답사(回答官)로서 파견된 이래 적어도 여덟 차례, 사신으로 심양을 왕래한 박난영(朴蘭英)은 최후의 춘신사(春信使) 박노(朴簫)와 동행하던 중 청군에게 붙잡히고 마푸타 Mafuta 의 노여움을 사서 살해당하고 만다. 한명기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636 년] 12 월 16 일, 심집(沈諶) 일행은 청군 진영으로 들어갔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심집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청군 진영에 가기 전에 “나는 평소에 말을 진실되게 하였으니, 오랑캐라고 해서 속일 수는 없다”라고 자신의 ‘속 마음’을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마푸타[馬夫大]가 왕제와 대신의 진위(眞僞)를 묻자, 겁을 먹은 심집은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과 능봉수(綾峯守)가 모두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능봉수는 자신이 왕제(王弟)임을 강변하였지만, 심집의 말을 들은 청군 지휘부는 믿지 않았다. 당시 역관(실제로는 무관) 박난영이 청군 진영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마푸타가 박난영에게 ‘심집의 말이 사실인가’라고 힐문하였다. 박난영이 ‘능봉군의 말이 맞다’고 대답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마푸타가 박난영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¹¹

이 기술은 나만갑(羅萬甲) 『丙子錄』 12 월 16 일 조를 따랐다고 생각되나, 조금 다른 부분이

¹¹ 韓明基, 『역사평설 병자호란』 2, 푸른역사, 2013, 101・104 쪽.

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오랑캐 진영[虜陣]으로 출발하자 심집은 “나는 평소에 충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맥(蠻貊)이라고 할지라도 속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마푸타[馬胡]에게 “나는 대신이 아니다. 임시로 높은 관직을 지닌 자이다. 능봉군(綾峯君)은 종실이지만, 국왕의 피를 받은 왕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¹²

한명기는 나만갑이 ‘왕자’라고 한 부분을 ‘왕제’로 바꾸어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회보(李回寶)에 따르면, 심집이 당초에 ‘왕자’가 아니라 ‘왕제’를 인질로 삼으려 한 사실을 마푸타가 문제시하자, 다시금 ‘왕자’가 상중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마푸타는 청과 조선이 이미 ‘형제’이기 때문에, ‘왕자’가 상중이라고 해도 ‘큰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도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¹³

그리고 석지형(石之珩)은 심집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청 장수가 심집에게 “이 왕제(王弟)는 진짜인가?”라고 말했다. 심집은 “어찌하여 진짜인지가짜인지를 묻는가?”라고 말했다. 청인이 노여워하여 “나는 원래 왕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반드시 왕자를 보내오라. 그렇게 하면 병사를 물리겠다.”라고 하였다. 심집이 돌아와서 이를 보고하자 비변사에서는 심집의 대응 실패를 비난하였다. 심집은 “말은 충직하고 믿음직해야 하고, 행동은 도탑고 공손해야 한다. [이는] 만맥(蠻貊)의 나라라고 해도 바뀌어서는 안된다. 내 대응이 옳다.”고 말했다.¹⁴

현 시점에서는 이 석지형의 기술이 착종하는 여러 정보를 가장 정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마푸타는 심집 등이 데려 온 자가 왕자가 아니라 왕제인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고, 왕제의 진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칭(李僖)이 진짜 왕제가 아닌 사실은 마푸타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명기가 “오랑캐라고 해서 속여서는 안된다.”라고 해석한 심집의 ‘만맥(蠻貊)’ 관련 발언은 ‘청군 진영에 가기 전’이 아니라 ‘갔다 온 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나만갑은 왜 이칭을 가짜 ‘왕자’로 기록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조선 조정은 왕자를 파견하지 않아서 이 때의 교섭은 결렬되었고, 그 결과를 알고 있던 나만갑이 자세한 경위를 생략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된다.

이제 다시 박닌영이 살해된 시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나만갑 『병자록』의 해당 부분에서는

그 뒤, 마푸타가 속았음을 알고 박닌영의 거짓말을 이유로 그를 참수하였다.¹⁵

¹² “馬胡請送王子大臣。朝廷以綾峯陞秩爲君，刑曹判書沈誦假銜大臣，出送虜陣，則沈誦言，我本平生所言忠信，雖蠻貊不可欺。謂馬胡曰，我非大臣，乃假銜也。綾峯君宗室，非親王子也。綾峯君曰，沈誦之言非也。此實大臣，我實王子也。先是，朴簪朴蘭英征往瀋陽，中路爲馬將所執，來在陣中。馬胡問蘭英曰，此言如何。答曰，綾峯君之言是也。”

羅萬甲『丙子錄』은 완성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을 참고하였다. 丁奎福·高憲植, 「〈山城日記〉의 文獻學的 研究」, 『教育論叢』12, 高麗大學校教育大學院, 1982 도 참고.

¹³ 이상, 李回寶, 『石屏先生文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續25) 卷五, 「丙子南漢日記」 12月16日條, “賊問曰, 此王子, 果眞王子耶. 沈答曰, 眞假何須問. 只要在結好而已. 此則乃王弟也. 胡曰, 我本意求王子也. 沈曰, 我則聞求王子, 故如是耳. 且聞來得王子弟云. 我國不分弟與子, 而同稱子弟. 故以王弟來耳. 胡曰, 必得王子, 然後可還. 沈曰, 王子時未聞服〈時中殿賓天〉, 不可遠行. 且我國禮法, 子若居喪, 則自稱罪人, 仰不見天見人. 何心何顏, 出見乎. 賊曰, 我與爾國, 既爲兄弟, 王子雖居喪, 豈無出見伯叔之理乎.”

¹⁴ 石之珩, 『南漢解圍錄』 (서울大學校奎章閣 所藏) 丙子12月16日條, “清將向沈曰, 此眞箇王弟否. 沈曰, 安問其眞假爲. 清人怒曰, 吾元來不求王弟. 必王子而後可. 沈歸告其說. 廟堂責沈失對. 沈曰, 言忠信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吾以是耳.”

¹⁵ “其後馬胡, 知其爲見欺, 以蘭英賣言斬之.”

라고 하였다. ‘그 뒤’라고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곧장 참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지호(鄭之虎)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오랑캐가 마침내 난영을 죽이고나서 “세자를 보내라. 그래야만 화평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¹⁶

또한 김상헌(金尙憲)은

노추(虜酋)가 노여워하여 곧바로 난영과 인질을 죽였다.¹⁷

라고 하여, 가해자를 홍타이지로 보았고 그 자리에서 박난영과 이칭이 살해당했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남한기략(南漢紀略)』 12월 21일 조에 기록되어, 남한산의 ‘성이 처음으로 포위되었을’¹⁸ 때의 일로 회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적 측면도 포함하여 실태를 충분히 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료에 따라 박난영이 죽은 사정에 관한 기술이 어긋났기 때문일까, 『인조실록』에서는 “오랑캐가 크게 노여워하여 마침내 난영을 죽여버렸다”¹⁹라는 모호한 기술이 되었다.

남원에서 있었던 전쟁 상황을 주시하였던 조경남(趙慶男)은 홍타이지가 실제로 소현세자, 봉림대군 등과 만나서 박난영의 증언이 허위임을 확인한 뒤에 박난영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살해당한 날을 인조 15년(1637) 정월 30일로 보았다.²⁰ 이렇게 해석을 할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뒤엉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였든 “마푸타가 박난영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한명기의 기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명기처럼 조선 조정이 가짜 왕자를 보냈고, 올곧은 성격을 지닌 심집의 대응으로 그 거짓이 발각되어 박난영이 죽임을 당했다는 해석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태는 이처럼 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마푸타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심집이 데려온 자가 왕자가 아니라 왕제라는 점으로, 심집과 이칭은 어쨌든 귀국하였고 박난영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한명기의 기술은 조선 조정이 명과 맺은 사대관계를 고집하여서 청의 침략을 조선 스스로 초래하였다는 종래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서술이 되었다. 여기서는 조선 조정 대응의 이상한 점이 강조되었고, 또 청 측의 내부사정 등에 대해 다른 부분은 매우 적다.

이 장면에서 박난영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면, 조선의 비극성은 더욱 명료해진다고 생각한 한명기가 이렇게 기술하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나만갑과 김상헌 등에 의해 병자호란 직후부터 만들어졌다는 점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간 다른 대신의 기록에서는 인질로 왕자를 보내야 할지, 왕제를 보내야 할지라는 형식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각대로 교섭을 진전

¹⁶ 鄭之虎, 『霧隱先生文集』(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 卷五, 雜著下, 「南漢日記」丙子12月16日丙戌條, “虜遂殺蘭英, 因言曰, 出送世子, 然後方可議和云.”

¹⁷ 金尙憲, 『南漢紀略』丙子12月21日條, “虜酋怒, 即殺蘭英及質子.” 金尙憲 著, 申海鎮 譯, 『南漢紀略』(博而精, 2012年)가 있다.

¹⁸ “城之初受圍也.”

¹⁹ 『仁祖實錄』14年12月丙戌(16日)條.

²⁰ 趙慶男, 『續雜錄』四, 丁丑春正月30日條, “從汗分付, 上只與獐平率清衛還宮. 留置世子及嬪鳳林與夫人于清陣. 汗前問沈緝大臣眞假於朴蘭英, 英以眞對. 至是知其假, 以爲欺罔. 出蘭英斬之.”

시키지 못한 심집은 남한산성으로 귀환한 뒤, 조정 내에서 대응의 미숙함을 추궁당했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의 대응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교섭에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였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박난영의 죽음에 대한 한명기의 해석은 이러한 연구 방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박난영은 언제 죽임을 당했을까? 조성교(趙性敎, 1818~1876)가 지은 시장(諡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심집과 종실[李儁]이 동시에 도착하였다. 적은 이들을 붙잡고는 “그대는 정말로 대신인가?

그는 정말로 친왕자(親王子)인가?”라고 하였다. 심집은 “나는 가짜 대신이고 그는 가짜 왕자다.”라고 하였다. 적은 크게 노여워하면서 공(박난영)에게 자신을 속였다고 하면서 칼을 빼 들고 노려보았지만, 공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 적은 곧장 [심집과 이칭 들을] 둘러보았다. [중략] 적은 진군해서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공을 군전으로 끌어내서 자신을 속인 열 가지 죄를 열거하였다. 공은 당당한 자세로 매섭게 욕설하기를 “네 아버지가 생전에 [조선과] 교린할 것을 정하였는데, 죽은 뒤에 이를 거역하였으니, 불효라고 할 수 있다. 정묘 [년] 에 화평을 약속하였을 때,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까닭도 없이 하늘을 거스르면 이는 불의 · 불효이다. 의롭지 못하면 하늘은 반드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호인이 그의 충직함을 애석하게 여겨서, 이를 용서하고자 공에게 “살고 싶다면 그대로 있어라. 죽고자 한다면 일어나거라.”라고 하였다. 공은 곧바로 일어났다. 배하의 역관(譯官)이 울면서 “만약 한 말씀하여서 스스로 해명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분연히 “주군이 옥보이면 신하는 죽는 것을 직무로 할 뿐이다. 왜 구태여 살고자 하는가?”라고 하였다. 남한산성 쪽을 향해 네 번 절을 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12 월 29 일이었다. 향년은 62 세였다.²¹

조성교는 심집과 이칭의 기술에 대해서는 나만갑의 기술을 따른 것 같다. ‘적(敵)’에게 ‘네 아버지’라고 표현한 점을 볼 때, 그 ‘아버지’는 누르하치, ‘적’은 홍타이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 아버지를 거역하였고, 게다가 정묘호란 시기에 맺은 맹약도 어겼으니 불의이고 불충이라는 상당히 각색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1619 년 사르후 전투에서 포로가 된 이래, 후금과의 관계 구축에 부심하였던 박난영이라면 홍타이지에게 직접 두 번째의 침략을 항의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있을 법하다. 홍타이지의 한성 입성은 늦어도 12 월 29 일이라고 생각되는데,²² 또한 남한산성 방향을 향해 네 번 절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남한산성에 도착하지 않았다. 마푸타는 한성 교외에서 홍타이지의 도착을 기다렸고, 그의 판단을 기다린 뒤에 참수를 집행하였다. 그 날은 12 월 29 일로, 집행한 자도 역시 마푸타였다고 생각된다.

시장(諡狀) 말미에는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趙性敎撰’이라고 적혀 있다. 조성교가 우참찬이었던 시기는 1871~1872 년 이므로 찬술도 이 무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포함하여 기술의 신빙성에 의심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족보」에 실린 이 기술을 당분간은 따르고자 한다.

²¹ 『高靈朴氏世譜』(國立中央圖書館所藏, 高靈朴氏譜所, 1918 年) 卷首「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資憲大夫知中樞府事公贈忠肅公諡狀」“沈誦與宗室偕至. 敵執之曰, 汝果大臣, 彼親王子乎. 誦曰, 我乃假大臣, 彼乃假王子. 敵大怒, 謂公欺已, 露刃脫之, 公顏不變. 敵即還. [中略] 敵乃進迫南漢. 曳公出軍前, 數以欺已十罪. 公揚揚大罵曰, 爾父在時, 定爲隣交, 死則背之. 可謂不孝. 丁卯約和時, 指天爲誓. 無故違天, 是爲不義不孝. 不義天必殃爾. 諸胡惜其忠, 欲貸之謂公曰, 欲生在, 欲死起. 公即起立. 票下譯官泣謂曰, 若一言自解, 可不死矣. 公忿然曰, 主辱臣死職耳. 何生之可圖. 向南漢四拜, 遂遇害. 即十二月二十九日也. 享壽六十二.”

²² 拙稿, 「丙子の亂と朝清關係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55, 2017, 58 쪽.

맺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여 ‘호란’연구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우선 정묘호란 시기에 ‘정묘화약’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정묘호란 시기에는 두 가지 다른 맹약이 체결되었고, 이 둘은 장소도 주체도 내용도 달랐다. 두 맹약에 관한 이해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이 둘을 혼동시킬 수 있는 ‘정묘화약’이라는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왜 두 맹약이 체결되었는가라는 점은 청의 정치체제와 깊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유재성, 한명기와 같이 전부 사상(捨象)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또한 두 사람의 연구가 여전히 ‘한국사’의 범주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청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박난영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의 죽음은 병자호란에서 조선측 교섭담당자의 잘못에 의한 바가 크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비극적으로 묘사되었고, 또 이로 인해 ‘침략을 당한 조선왕조라는 나라’ 그 자체의 비극성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청의 동향과 이에 따른 조선의 대응이라는 ‘호란’의 실태를 해명하려는 관심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명기가 박난영을 시종일관 ‘역관(譯官)’으로 오인한 점은 이러한 실태를 해명하려는 관심이 거의 없음을 상징한다.

검토한 두 문제에는 관련된 여러 자료의 조사부족, 실태에 맞는 역사상을 그려내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한 점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명, 청, 조선의 여러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당시의 국제정세가 어떠하였고 조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 과정을 밝히는 일이 향후 ‘호란’연구에서 필요하다.